자승 대종사, 국가 최고 영예 무궁화장 수훈

12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추서식
유인촌 장관이 대종사 영전에 봉정
사회통합, 전통문화 창달 기여 공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인촌 장관이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봉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11월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전통문화 창달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자승 대종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추서한 훈장을 자승 대종사 영전에 봉정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역대 무궁화장에는 월주 스님, 법장 스님, 청담 스님 등이 추서된 바 있다.

훈장 봉정을 마친 유인촌 장관은 "훈장 추서는 자승 대종사의 입적 첫날부터 논의됐고, 대종사의 공로를 인정해 추서가 빠르게 결정됐다. 발인 전에 추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자승 대종사께서는 불교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폭 넓은 활동을 해오셨다. 훈장 추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도 이날 오후 조계사를 찾아 자승 대종사를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린 윤 대통령 부부는 삼배를 하며 대종사를 애도했다. 이후에는 장의위원 스님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스님들과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승 대종사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 원적에 관심과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유지를 잘 받들어 한국불교의 안정과 화합을 빈틈없이 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봉은사서 초재…"대종사 유지 이어가겠다"

12월 5일, 자승 대종사 유언 따라


12월 5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49재 초재.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49재 초재가 12월 5일 대종사의 주석사찰이었던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 등을 상주로 봉행된 봉은사 초재에는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승 대종사의 덕화를 기렸다.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에는 다비부터 모든 재를 봉은사에서 지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30여 명은 대종사 영전에 헌향·헌화하며 종단 화합과 대학생 청년 전법의 가치를 되새겼다. 봉은사 초재 종사영반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맡았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초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승 스님은) 불교광장 총재로서 든든한 버팀목이이셨고, (많은 이들의) 의지처로서 큰 역량을 발휘하신 분"이라며 "종회는 총재스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과 화합의 힘을 잘 지켜나가겠다. 종단 화합과 발전, 대학생 청년 포교 원력을 종회의원, 상월결사, 종단이 잘 이어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승 대종사의 상좌들이 모인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은 장례를 종단장으로 결정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다. 탄원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장례를) 종단장으로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 유지에 따라 봉은사에서 초재부터 막재까지 지내고, 문도를 생각해 용주사에서 초재와 막재를 올리게 돼 많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은사스님이) 작년에 문도회 대중을 모아놓고 '행여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다들 뭉치고 의지해야지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문도회가 똘똘 뭉쳐서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화성 용주사에서도 초재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모의 참배를 올렸다.

윤호섭 기자

"자승 대종사 원적, 종도 단합 계기 삼자"

조계종 제3차 본사주지회의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교구본사가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67(2023)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특별교구를 포함한 27개 본사 중 22개 본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입적에 따른 현안 공유차 열린 임시회의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제안에 따라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기원하며 짧은 추모 입정으로 전법 의지를 다졌다. 진우 스님은 이어 인사말을 통해 종단장으로 치른 자승 대종사 장례에 성심껏 동참해준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종단사에 생겼다. 아직도 이것이 꿈이 아닌지 가끔씩 생각하게 된다"며 "자승 대종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다 함께 일심동체로 중심이 된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종도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모처럼 찾아온 종단 안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전 종도가 합심해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 그렇게 된다면 자승 대종사님의 바람대로 불교중흥과 전법도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출가정신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감, 소통하면서 부처님법과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평무사를 원칙으로 해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력불사 계승에 대한 건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에 대한 건 △천년을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및 명상프로그램 개발' 보고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보고 등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자승 대종사 원적에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계기로 종도가 단합·발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총무원 측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일심동체로 총무원장스님을 잘 모시며 한 뜻으로 총무원 집행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요 종책사업인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와 명상센터 건립 등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